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미애¹, 최성숙^{2*}

¹영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수성대학교 치위생과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i-Ae Sung¹, Sung-Suk Choi^{2*}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2*}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seong College.

(Received September 27, 2018; Revised October 13, 2018; Accepted November 8, 2018)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students 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investigation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systematic career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program.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49 students from December 1 to 10 day 2016 in Yeongnam regio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t-test(One-way ANOVA), logistic regression by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epartment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major satisfied with 59.8%. Satisfaction with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68.30 ± 10.21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1$). Satisfaction was also foun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32.65 ± 6.05)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 < .05$). Satisfactory scores were found to 1.306 times higher than the dissatisfied students i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goal setting. It was found that 8.423 times in satisfaction of career planning in career preparation.

Conclusion. Considering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ould be good if we could develop and use various program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in their majors.

Key wor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chsukdent@sc.ac.kr

1. 서론

대학시절은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과 구체적인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진로 준비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¹⁾. 대학재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 진로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해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²⁾. 대학생들은 적극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전공외의 다른 장점과 노력을 지녀야 하는 스펙 쌓기에 중점을 두게 되고 시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대학생활동안 보완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취업정보실과 대중매체,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³⁾.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연보에서는 2014년도 취업률은 전문대학 67.8%, 대학교 64.5%, 대학원 77.5%로 조사되었고, 2015년에는 전문대학 69.5%, 대학교 64.4%, 대학원 77.8%의 취업률이 조사되었다⁴⁾. 2017년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는 75,883명으로 집계 되었지만 2017년 4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5,09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18년 4월 통계청 KOSIS 기준 고용률 60.9%로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⁵⁾.

최근 치위생전공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이 개설되면서 병원 외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 치위생 관련 전공만족도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과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화 하고 실행 해 갈수 있으며 장애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를 결정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는 개인 스스로가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수준이며 진로나 향후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⁶⁾.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을 말한다. 1989년 Bandura⁷⁾에 의하면 개인이 특정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중개 변인에 기초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준비활동으로 진로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실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실천적인 준비행동을 인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8),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최근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Bae 등¹⁰⁾ 과 Lee와 Lee¹¹⁾가 연구했으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문헌이 미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영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위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취지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케 한 후 회수 하였다. 회수한 255부 중 결측치가 있는 응답 자료 6부를 제외시킨

총 24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위한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1983년 Taylor¹²⁾가 사용한 측정도구를 Yoon¹³⁾이 번역 해석한 직업정보(1,10,15,19,23)5문항, 목표설정(2,6,11,16,20)5문항, 진로계획수립(3,7,12,21,24)5문항, 문제해결(4,8,13,17,25)5문항, 자기평가(5,9,14,18,22)5문항 총 25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3이었다.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검사 척도는 1997년 Kim⁸⁾이 제작한 CESVQCPQ: Career Exploration Survey Vocational Questionnaire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 16문항을 계획수립(6,14,15,16)4문항, 상담활동(1,2,3,11)4문항, 직업탐색(8,9,10)3문항 총 11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척도(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75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표준편차를 기술 하였고,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공만족도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2학년 23.7%, 3학년 76.3%로 3학년의 비율이 높았고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64.6%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성적은 3.0~3.9 사이가 62.6%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 52.8%, 대인관계 보통이 56.2%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9)

Characteristic	N	%	
Grade	2	59	23.7
	3	190	76.3
Religion	Christian	34	13.7
	Buddhism	44	17.7
	Catholic	10	4.0
	No	162	64.6
Academic performance	2.9 \geq	70	28.1
	3.0~3.9	155	62.2
	4.0 \leq	25	9.7
Health status	Good	131	52.8
	Normal	118	47.2
Human relationship	Good	109	43.8
	Normal	140	56.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49	59.8
	Dissatisfaction	100	40.2
Total	249	100	

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 신뢰도 검증

결과 직업정보 .613, 목표설정 .642, 진로계획수립 .707, 문제해결 .574, 자기평가 .746으로 나타났다. 전체요인에 대한 Cronbach's a계수는 .893이었다(Table 2).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 number cronbach's a		
Job information	1,10,15,19,23	.613
Goal setting	2,6,11,16,20	.642
Clinical planning	3,7,12,21,24	.707
problem solving	4,8,13,17,25	.574
Self-assessment	5,9,14,18,22	.746
Total	25	.893

3.3. 진로준비행동 신뢰도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별 신뢰도 검증결과 계획수립 .748, 상담활동 .661, 작업탐색 .791으로 나타났다. 전체요인에 대한 Cronbach's a계수는 .875이었다(Table 3).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Question number cronbach's a		
Planning	6,14,15,16	.748
Counseling activities	1,2,3,11	.661
Job search	8,9,10	.791
Total	11	.875

3.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점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분석결과 자기효능감 전체 125점 만점에 66.18±10.41으로 평균점수가 나타났으며 최소 25점에서 최대 87점 이었다. 하위영역으로 문제해결이 13.64±2.92으로 가장 높았고, 진로계획 13.40±2.50, 직업정보 13.17±2.26, 자기평가 12.98±2.46, 목표설정 12.96±2.32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점수의 분석결과 진로준비행동 전체 55점 만점에서 31.93±6.39의 평균점수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소 11점에서 최대 55점 이었다. 하위영역으로 진로계획수립 12.69±2.78, 진로상담 10.01±2.63, 진로직업탐색 9.23±2.54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Score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actor	M±SD	Min value	Max value
Total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66.18±10.41	25	87
Job information	13.17±2.26	5	18
Goal setting	12.96±2.32	5	18
Career planning	13.40±2.50	5	19
Problem solving	13.64±2.92	5	34
Self-assessment	12.98±2.46	5	20
Total of career preparation action sum	31.93±6.39	11	55
Career planning	12.69±2.78	4	20
Career counseling	10.01±2.63	4	20
Career career search	9.23±2.54	3	15

3.5.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전공만족도는 만족 68.30±10.21, 불만족 63.03±9.94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였다(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전공만족도에서 진로계획이 만족 13.90±2.45, 불만족 12.66±2.39, 직업정보가 만족 13.59±2.26, 불만족 12.56±2.13, 목표설정이 만족 13.53±2.11, 불만족 12.13±2.38 으로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3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p<.001). 자기평가도 만족 13.38±2.41, 불만족이 12.39±2.4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진로준비행동에서 전공만족도는 만족 32.65±6.05, 불만족 30.87±6.76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p<.05).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전공만족도에서 진로계획수립, 진로상담, 진로직업탐색 모두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계획수립은 만족 13.18±2.53, 불만족 11.96±2.98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Table 5).

Table 5.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Factor	Major satisfaction		p
	Satisfied	Dissatisfaction	
	M±SD	M±SD	
Total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68.30±10.21	63.03±9.94	.000***
Job information	13.59±2.26	12.56±2.13	.000***
Goal setting	13.53±2.11	12.13±2.38	.000***
Career planning	13.90±2.45	12.66±2.39	.000***
Problem solving	13.88±2.63	13.29±3.28	.115
Self-assessment	13.38±2.41	12.39±2.42	.002**
Total of career preparation action sum	32.65±6.05	30.87±6.76	.030*
Career planning	13.18±2.53	11.96±2.98	.001***
Career counseling	10.10±2.53	9.89±2.78	.537
Career career search	9.37±2.56	9.02±2.51	.280

*p<.05, ** p<.01 ***p<.001

3.6. 전공만족도에 따른 관련요인

전공만족도에 대한 관련요인을 단계적 입력방법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Nagelkerke의 결정계수가 0.192로 19.2%로 설명

력을 가진다.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 학생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설정에서 1.306배 정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 중 진로계획수립에서 8.423배 정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Classification	Major satisfaction					
	B	S.E	Wals	p-value	OR	95% CI
Grade	.180	.383	.220	.639	1.197	.565_2.537
Religion	.109	.124	.766	.381	1.115	.874_1.423
Academic performance	-.364	.250	2.123	.145	.695	.426_1.134
Health status	.314	.322	.949	.330	1.369	.728_2.574
Human relationship	.036	.320	.013	.910	1.037	.554_1.940
Job information	.033	.100	.107	.744	1.033	.850_1.257
Goal setting	.267	.102	6.866	.009	1.306**	1.070_1.594
Career planning	.070	.096	.531	.466	1.072	.889_1.294
Problem solving	-.096	.063	2.282	.131	.909	.803_1.029
Self-assessment	-.053	.103	.270	.604	.948	.776_1.159
Career planning	.189	.065	8.423	.004	1.208**	1.063_1.373
Career counseling	-.028	.068	.167	.683	.973	.852_1.111
Career career search	-.049	.072	.466	.495	.952	.827_1.096
Nagelkerke R ²				.192		
-2LL				295.719		
x ²				6.389(=8,p=.604)		

* $p < .05$, ** $p < .01$ *** $p < .001$

4. 총괄 및 고안

취업은 청년기 대학생들에게 삶의 전체가 결정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면서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취업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는데 평균 13개월이 걸리고, 대학생의 30.5%는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¹⁴⁾.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흥미와 적성보다는 학업성과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결정과정 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⁵⁾.

이에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에 앞서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과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진로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치위생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9.8%, 불만족이 40.2%로 만족이 불만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이 실습과 이론이 병행되어 있으며 이론 공부 후 실습을 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점과 실습실환경이 일반 치과병·의원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3, 진로준비행동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75이었다 Aha와 Kim¹⁶⁾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00이었고 진로준비행동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도 .900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점수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문제

해결 13.64±2.92, 진로계획 13.40±2.50, 직업정보 13.17±2.26, 자기평가 12.98±2.46, 목표설정 12.96±2.32순으로 문제해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목표설정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반면 Aha와 Kim¹⁶⁾의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에서는 미래계획 .83, 목표설정 .82, 자기평가 .77, 직업정보 .76, 문제해결 .47순으로 미래계획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문제해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에서는 진로계획수립 12.69±2.78, 진로상담 10.01±2.63, 진로직업탐색 9.23±2.5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ha와 Kim¹⁶⁾의 진로준비행동 1.94, 진로준비행동 2.63, 진로준비행동 3.56의 순위점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만족 68.30±10.21, 불만족 63.03±9.94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였다(p<.001). 하위요인 중에서는 진로계획, 직업정보, 목표설정 3요인 모두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자기평가 또한 만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진로준비행동 전체에서도 만족 32.65±6.05, 불만족 30.87±6.76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p<.05).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전공만족도에서 진로계획수립, 진로상담, 진로직업탐색 모두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계획수립 또한 만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Cho¹⁷⁾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상 3.40±0.55, 중 3.02±0.46, 하 3.10±0.73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 또한 상 3.08±0.79, 중 2.83±0.66, 하 3.01±0.77의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와 Kang¹⁸⁾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Han와 Lee¹⁹⁾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²⁰⁾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하였고 하위요인 중 진로계획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Ryu²¹⁾의 보건계열 학생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경우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나 취업에 대한 자립의지가 높아져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시사하였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관련요인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 학생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설정에서 1.306배 정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 중 진로계획수립에서 8.423배 정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3학년 학기가 시작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하여 학업계획을 세우게 지도하고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자 선정 시 임의적으로 편의추출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설문지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치위생교육의 표준화된 지침서 자료개발에 활용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취업맞춤형 진로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치위생과 학생들은 59.8%가 전공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서 진로계획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에서는 진로계획수립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만족 68.30±10.21, 불만족 63.03±9.94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였다($p<.001$). 진로준비행동에서도 만족 32.65±6.05, 불만족 30.87±6.76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p<.05$).

셋째. 전공만족도에 따른 관련요인에서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 학생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설정에서 1.306배 정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 중 진로계획수립에서 8.423배 정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References

1. Lee JS. The Effects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Busin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ability)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the Business Education. 2016;30(2):1-31.
2. Park SH, Park HJ.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2009;9(1):67-81.
3. Hwang JY.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 Marking and Carriers up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7.
4. Park SH, Lee GJ, Son JH. 2015, Statistical Yearbook for Employment for Higher Education Graduates Linked with health insurance database Higher Education Graduates. 2016.
5. Statistics Korea. <http://www.index.go.kr/search/search.jsp>. 2018.
6. Jeong HY.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2010.
7. Bandura, A.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s. 1989; 44:1175-1184.
8. Kim B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Seoul University. 1997.
9. Jang MJ.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14;12(1):81-104.
10. Bae SS, Mun SJ, Noh HJ. Influencing Factors up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8):439-447.
11. Lee SJ, Lee YJ.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2;3(2):27-32.
12. Taylor KM, Bets N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3;22(1):63-81.
13. Yoon YR. A study on Effective Career-Guidance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areer subject class and career group counselling Unpublished docto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2007.
14. Kim M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ffect of major selection Academic achievement for the first job for young peopl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5;8(1):127-137.
15. Nam HR, Ha J. Study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ndecision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Environment. 2012;10(3):27-37.
 16. Ahn TY, Kim S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Centering around college students in Busa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3;32(6):21-42.
 17. Cho HJ.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4;33(4):103-127.
 18. Kim YM, Kang SC, Kim EH, et al. Correlation Between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8;6(1):1434-1442.
 19. Han YJ, Lee JH.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 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2013;19(2):76-92.
 20. Lee HS. The Effects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Busin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ability). 2012;50(7):59-66.
 21. Ryu HG.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the allied health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7;5(4):981-990.